



Adoration of the Magi, Sandro Botticelli,
National Gallery of Art, Washington, DC.

**“그 집에 들어가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아기를 보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였다.”**

(마태 2,10)

■ 미사전례

- 제 1독서: 이사 60,1-6
- 화답송: ◎ 주님, 세상 모든 민족들이 당신을 경배하리이다.
- 제 2독서: 에페 3,2.3-5-6
- 복음 환호송: ◎ 우리는 동방에서 주님의 별을 보고 그
분께 경배하러 왔노라. ◎
- 복 음: 마태 2,1-12

■ 미사시간

- 주일미사: 토요일 오후 7:30
일요일 오전 8:00
오전 10:00(영어)
오후 12:00(교중미사)
- 평일미사: 화 · 수 · 목요일 오후 7:30
금요일 오전 10:00

화 답 송:

◎ 주님, 세상 모든 민족들이 당신을 경배하리이다.

- 하느님, 당신의 공정을 임금에게, 당신의 정의를 임금의 아들에게 베푸소서. 그가 당신 백성을 정의로, 가련한 이들을 공정으로 다스리게 하소서. ◎
- 저 달이 다할 그때까지, 정의와 큰 평화가, 그의 시대에 꽃피게 하소서. 그가 바다에서 바다까지, 강에서 땅 끝까지 다스리게 하소서. ◎
- 타르시스와 섬나라 임금들이, 예물을 가져오고, 세바와 스바의 임금들이, 조공을 바치게 하소서. 모든 임금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모든 민족들이 그를 섬기게 하소서. ◎
- 그 큰 하소연하는 불쌍한 이를, 도와줄 사람 없는 가련한 이를 구원하나이다. 약한 이, 불쌍한 이에게 동정을 베풀고, 불쌍한 이들의 목숨을 살려 주나이다. ◎

[영성적 삶으로의 초대] 영성이란 무엇인가 21 - 계시에 대해서....(6)

하느님의 계시는 어떻게 접할 수가 있을까.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것은 성경이다. 성경에는 4000년 전부터 하느님께서 섭리하신 내용이, 하느님의 뜻이 담겨 있다. 성경에는 그 장대한 세월동안 진행된 하느님의 섭리와 계시가 집약되어 있다.

계시의 또 다른 한 물줄기는 성전, 즉 거룩한 전통을 통해 내려오고 있다. 교부들과 교회의 가르침 그리고 교리 등을 말한다. 성경과 성전 모두 중요하지만 특히 성경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따라서 하느님의 계시를 이해하기 위해선 성경을 좀 더 깊이 있게 이해해야 한다. 주교님들과 신부님들이 성경공부를 강조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런데 많은 신앙인들이 성경을 어려워한다. 이유가 있다. 당연하다. 성경은 옛날 책이고 우리는 오늘을 산다. 소위 말하는 갭(gap)이 있다는 말이다.

4000년 전과 지금은 다를 수밖에 없다. 아브라함 시대는 청동기였다. IT시대에 청동기 시대의 이야기들 의미 있게 받아들인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그 갭을 줄여주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바로 '신학'이다. 아우구스티누스, 토마스 아퀴나스 등 이름만 들어도 쟁쟁한 분들이 신학자였다. 교회의 두 기둥이신 이분들을 비롯해 수많은 신학자들이 그동안 나타났고, 성경과 그 속에 담긴 계시들을 학문적으로 풀어냈다. 이들은 각각 그 시대에 가장 맞는 해석을 통해 인간들의 삶을 하느님께로 이끌었다. 여기서 신학은 성경을 해석하는 만큼 계속해서 변화되어야 한다. 교리도 계속 변화 적용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하느님께서 주신 계시가 뭔지를 오늘날의 차원으로 깨닫게 된다. 이 깨달음을 멈추면 계시는 닫히는 것이다.

그런데 이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이렇게 계시를 풀어내는 것이, 정신적 이해 차원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정신적인 차원이든 마음의 차원이든 아무리 내면적으로 정리했다고 하더라도 마지막 실천은 몸으로 하는 수밖에 없다. 마음은 뛰어다닐 수 없다. 정신도 뛰어다닐 수 없다. 뛰어다니는 것은 몸이다. 마음이 눈을 통해서 뛰어다니고 정신이 입을 통해서 뛰어다니고 귀를 통해서 뛰어다니고 손을 통해서 뛰어다닌다. 정신과 마음은 내면에서 정리하는 것이고 마지막 적용은 몸으로 하는 거다. 몸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다시 한 번 알 수 있다.

신심 깊은 할머니들의 눈을 보면 그 안에 정신을 뛰어 넘는 마음의 차원에서의 겸손함이 가득 들어있음을 보게 된다. 신심 깊은 할머니들의 눈에는 하느님께 대한 희망의 눈빛이 담겨 있다. 하느님께 대한 사랑의 눈빛이 담겨 있다. 겸손과 순명의 눈빛도 담겨 있다. 좋은 게 다 담겨 있다. 육신 안에 말이다. 정신은 안 돌아다닌다. 영도 안 돌아다닌다. 육신을 통해서 행동화된다. 그래서 계시의 적용에서는 육신이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눈 한 번 어떻게 뜨느냐, 입 한 번 어떻게 여느냐를 보면 그 안에 정신이 담겨 있고 그 안에 마음이 담겨 있다. 내면으로 아무리 신심이 깊다고 하더라도 눈을 이상하게 뜨고, 말을 함부로 한다면 그 사람은 아직 계시를 이해하지 못한 사람이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계시의 적용은 몸으로 하는 것이다.

그리스도교는 계시 종교다. 하느님께서 열어 보이신 것을 받아서 나도 열어 보여야 한다. 열어 보이신 것은 받아들이지 않고, 설사 받아들였다 해도 나 자신이 열어 보이지 않는다면 계시를 살지 못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선 개인적 차원에서, 그리고 공동체적 차원에서 함께 노력해야 한다. 세상의 것을 받아들이면 보여줄 것이 세상의 것 밖에 없다. 하느님께서 열어 보여주신 것을 받아들이면 하느님의 것을 보여줄 수 있다.

우리는 성경을 오늘날의 의미로 승화시켜 깨달아야 하고, 그 깨달음을 통해 사회의 모든 분야를 이해하고, 몸으로 살아야 한다. 문제는 적용이다. 어떻게 적용하는가 하는 것이다.

다음 주에 구체적 이 적용의 문제에 대해 생각해 보자.

<가톨릭신문 제2770호 (2011년 11월 13일) - 정영식 신부 (수원교구 군자본당 주임)>

주임신부 : 양태현(그레고리오) ☎323-828-7482 / 보좌신부 : 정재덕(안토니오) ☎323-493-2727 / 종신부제 : 예영해(프란치스코) ☎213-249-2127

성삼 소식

☞ 예비자 교리반 모집

- 일시: 매 주일 오전 9:00, 201호
- 문의: 복음화부장 임상도(스테파노) ☎213-361-4907

주일학교 · 한국학교

☞ 주일학교 겨울 방학

- 기간: 2020년 12월 27일(일) ~ 2021년 1월 3일(일)
- 개학: 2021년 1월 10일(일) 영어미사 후
- 등록: <https://forms.gle/TzYpp4HaWXcJxyCv9>
(성삼 웹사이트에도 링크로 신청 가능합니다.)

☞ 성삼 한국학교 겨울 방학

- 기간: 2020년 12월 26일(토) ~ 2021년 1월 2일(토)
- 개학: 2021년 1월 9일(토) 오전 9:30

☞ 성삼 한국 학교 2학기 학생 모집

- 봄학기: 1월 23일(토) ~ 5월 22일(토)
- 수업방법: 온라인수업(Zoom)
- 수업시간: 토요일 오전 9:30 ~ 오후 12:30
- 대상: 유치부~12학년, SAT반.
- 수업료: 한자녀 \$175. 두자녀 \$300. 세자녀 \$425.
- 문의: 김 네온 수녀님 ☎323-828-8876
박미향(안토니아) ☎213-507-1802

우리들의 정성 (2020 12. 31 현재)

교 무 금	14,310.00	교무금(32명)
주일 헌금	996.00	강장섭, 강 진, 김귀중, 김명자, 김신아, 김영찬, 김유석, 김은민, 김정신,
감사 헌금	2,100.00	김진정, 김천애, 방도연, 백경호, 신보용, 안진환, 유병욱, 유복선, 유복순,
건축 헌금	50.00	이달근, 이영자, 이용일, 정총희, 조우제, 차봉철, 최진경, 한정근, 한태호,
기부금	150.00	김윤자, 김탁제, 마영일, 이봉화, 주영만,
성탄 구유예물	3,859.00	감사헌금(4명) 김대식, 차봉철, 송재욱, 익 명,
성탄 대축일	1,432.00	건축헌금(1명) 기부금(2명) 성소후원금(17명) \$73.00
광고비	600.00	



주님 공현 대축일에 돌아보는 '나눔'의 의미 <타인 위해 시간·노력 등 삶의 일부 내어주는 것>

덕이: 신부님, 오늘이 교회력으로 주님 공현 대축일이네요.

신부: 네, 주님께서 당신 모습을 공적으로 나타내 보이신 것을 경축하는 날이죠. 저는 동방박사들이 과연 주님께 드린 것이 무엇이었는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시몬: 황금·유향·몰약, 이 세 가지를 선물했다고 알고 있는데요.

신부: 네, 맞아요. 저는 여기에 한 가지를 추가하고 싶어요. 과연 무엇일까요? 동방박사들이 별을 보고 멀리서 걸어왔다는 데에서 힌트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이 한참을 걸어왔다는 것은, 곧 그들이 주님께 자신들의 '시간'을 포함한 삶도 함께 봉헌했다는 의미로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진정한 선물이란, 그저 타인에게 물질적인 어떤 것만을 주는 것이 아닌, 시간과 노력을 포함한 나의 삶의 일부를 내어주는 데 있다고도 볼 수 있을 거예요. 이를 통해 그 상대와 내가 인격적으로도 연결된다고도 할 수 있겠죠. 선물이 어떤 특정한, 내가 아는 어떤 사람을 향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그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향할 때, 교회는 전통적으로 그것을 '나눔'이라고 불러 왔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생활을 특징짓는 훌륭한 삶의 형태임을 가르쳐 왔습니다. 교회는 이 나눔을 언제나 우리들의 신성한 '의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덕이: 주님 공현 대축일에서 그런 의미를 찾을 수 있군요.

신부: 교회가 나눔을 이야기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모든 인간이 낳 때부터 사회적 존재라는 인식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이에 따라 우리는 "사랑의 힘으로 다른 이의 요구와 필요들을 자신의 것으로 느끼며, 자기의 재물들을 다른 이에게 나누어 주며, 정신적 가치로 충만한 세상을 지향해야 한다"("지상의 평화" 35항)는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지요. 나눔은 단지 나에게 남는 어떤 것을 내놓는 것이 아니라, 동방박사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삶의 일부를 우리와 공동으로 생활하는 사람들을 위해 내어 놓는다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교회는 특히 나눔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선택 사항이 아니라 '의무'임을 오래전부터 이야기해오고 있습니다.

덕이: 의무라면 꼭 지켜야 하는 것 아닌가요?

신부: 네, 요한 크리소스토모 성인은 "자신의 재물을 가난한 이들과 나누어 갖지 않는 것은 그들의 것을 훔치는 것이며, 그들의 생명을 빼앗는 것"이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새로 나신 예수님 앞에 드려야 하는 '선물'은 우리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사랑과 그 사랑의 결실인 '나눔'으로 실천되어야 하며, 이는 우리 모두의 의무라는 것이죠. 동방박사들이 그랬던 것처럼, 주님께 드려야 할 우리의 재물은 내가 아닌, '나와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향한 것이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가 이야기하는 '공동선의 원리'가 지켜지는 세상일 것입니다.

[가톨릭신문, 2017년 1월 8일, 지도 민경일 신부(서울대교구), 정리 서상덕 기자]



고려 여행사 3388 W. 8 th St. LA CA 90005 한 레지나 / 레오 Tel 213-385-6611	전 명세(패트릭), CPA RE BROKER INDIVIDUAL&CORP TAX, ACCOUNTING SERVICE, ESTATE PLANNING, ADVANCED FINANCIAL & RETIREMENT PLANNING 전 패트릭&안나 (213)380.6437 patrickchyun@hotmail.com	올림픽 타운 꽃집 Olympic Town Flowers 1101 S. Vermont Ave #107 (버몬트 + 11가 코너) (323)RED-ROSE (213)480-3102 김 미카엘라(예육)	백양 · 쌍방울 (LA 속옷 전문 매장) 한국산유명속옷브라자거들 양말·스타킹·잠옷·백일·돌복 LA 웨스턴 백화점(9가+ 웨스턴) 서 엘리사벳 213-487-7676
Fire Way Fire Protection 소화기 점검해드립니다. 김항철(요셉) 213-352-3554 김 호노리나 213-200-3049 EE#25138	건강보험(커버드CA), 메디칼-메디케어, 생명보험(Life), 연금(IRA), 무료상담 213-249-2121 예영해(프란치스코)	글렌데일 브랜드 꽃집 1134 E. Chevy Chase Dr Glendale, CA 91205 ☎ 818-244-1359 Web: www.brandflorist.com 서 베로니카	결혼정보회사 듀오 USA 한국 며느리, 한국 사위, 믿을수 있는 듀오 USA 에서 인연을 만드세요 세실리아 : 213-383-2525(LA) 201-242-0505(NY)
메디케어/오바마케어 생명/건강/사업체/자동차 박 헬레나(에실) ☎213-500-9393	Immanuel Dumplings 임마누엘 만두 고기, 김치, 납지, 고기&김치, 프로배지 만두. 이경은(소화테레사) ☎323-636-2577	Meeyoung J. Kim D.D.S Howard J. Yang D.D.S. <김 율리아, 양 파비아노> 437 W. Colorado St. Glendale ☎ 818-244-0299 일반치과, 치아미식, 보철치과	보스톤 치과 구강호 토마스AQ 213-380-2727 3663 W. 6th St. #203A. LA 한인타운 6가 와 아드모어 LA Medical Center
윤주익(클라라) Executive Manager Law Offices of Eugene Yun 부동산, 회사설립, 유언/상속, 교통사고, 형사법 213-388-3535/818-433-2891(C) www.eugeneyunlaw.com	대한 장의사 이 미카엘 213-700-1788	한 태 호 변호사 법률 그룹 KENNETH T. HaaN & associates A PROFESSIONAL LAW CORPORATION 민사소송/사고, 상해/노동법/이민법 3699 Wilshire Blvd. Suite 860 LA Tel (213)639-2900 www.haanlaw.com 한 마리노, 클라라	36년 전통의 한국장의사 HAN KOOK MORTUARY 323-734-5656(LA) 562-868-0788(세리토스/놀릭) 장례에 관한 모든 절차를 성심껏 도와드립니다.
불란서 안경검안과 FRANCE VISION OPTOMETRY 시니어 HMO 지정점 3104 W. Olympic Bl. LA. ☎ 213-487-1001 Elizabeth & Dr. Linda Lee (교우 특별 봉사)	미주 자동차 정비 MIJU AUTO REPAIR & BODY 415 W. Broadway, Glendale (818)247-4400 이 크리스티나 & Karl	안진환(Tony), CPA 안토니오 & 스텔라 2140 W. Olympic Bl. #508 (213)344-9137/(213)380-5070	서 승혜 나탈리아 공인 회계사 3450 Wilshire Blvd #302 Los Angeles, CA 90010 ☎ 213-380-8389/213-272-4988 e-mail: jeune1004@gmail.com
Hankook Plumbing 가정, 식당, 상가 모든 플러밍 설비 및 수리 아무리 작은 일도 성심껏 봉사 "막힌 곳은 뚫어드리고 뚫린 곳은 막어드리고" 홍 벤자민 818-321-4776	이동현 토마스 아퀴나스 내과/노인 의학과 213-674-7758 2727 W. Olympic Blvd. Suite 309 LA, CA 90006 한남체인 건너편 이전개원	광고주를 기다립니다.	구 본옥 한의원 사암침(빠른 효과) (8가와 Hoover 코너) 213-427-1299
이호제 MD Ho je Lee 가정 주치의 Glendale (818)246-3306 K-Town (323)452-0656	뉴스타 부동산 김영재(요한) 213-840-1237 Office: 213-385-4989 newjohnkim@newstarrealty.com BRE#:02033433	WESTERN EXPRESS 자동차 종합 정비 OIL CHANGE•TUNE-UP•BRAKE •CHECK ENGINE•SMOG CHECK 258 S. Western Ave. LA 90004 (213)365-0333 강안토니오	금강안경검안과 GOLD OPTOMETRY L.A. : (213)384-1001 (로데오 플라자 몰내) G.G. : (714)530-1001 (H 마트 몰내) 요셉 & 루시어 김 . M. E. 21개
수녀님 참기름 멕시코 농민 일자리 제공을 위한 건강하고 맛있는 참기름 주문전화: 213-220-1711 kakaotalk ID: puracollective www.puracollective.com	태양 여행사 2707 W. Olympic Blvd. #101 LA, CA 90006 서울 사무소 02-775-9702 김경희(골롬바) 213-252-9700	두드림 종합 보험(주) 대표: 제임스 양(아고보) 생명/은퇴연금/풍납케이/사업체/주택 자동차/건강/메디케어플랜 ☎:213-388-8055 LA 월서 + 세라노	광고주를 기다립니다.